

향후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마련

-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2002~2006) 수립 -



권오열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과장

건설교통부는 2001년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88.6% (서울 : 79.7%)에 불과한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주택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5년동안의 수도권 중기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여기에 필요한 공공택지 2,880만평도 매년 570만~600만평씩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서 올해부터 2006년까지 2,130만명이 택지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의 권오열 과장 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 | 왕희삼 기자〉

▣ 먼저 '향후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기본 취지는?

그동안 수도권의 주택건설은 주로 택지지구, 준농림지역, 재개발·재건축, 시가지내 나대지 개발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준농림지 주택건설은 논바닥 아파트,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초래됨에 따라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고,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강화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민간부문의 택지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내의 나대지도 거의 고갈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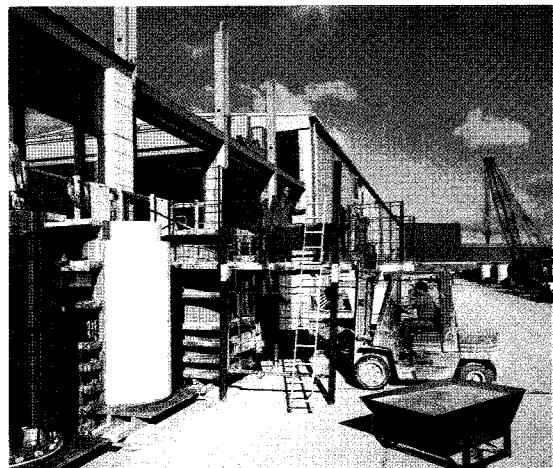
■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의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서는 2006년까지 5년동안 총 153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필요한 공공택지 2,880만평은 2001년 말 현재 수도권에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 1,900만평과 5년동안 새로이 지정하는 2,130만평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다(〈표 1〉 참조).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과 집값안정에는 크게 기여해 왔으나, 택지지구가 베드타운화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 입각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상업시설, 병원 등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IT, BT 등 첨단 자족기능시설과 교통대책이 수립된 계획도시로 조성하며,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지형과 생태축을 그대로 살리는 등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5년간의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은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구비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렇다면 2006년까지 5년간의 신규 주택건설



물량 153만호와 공공택지 소요량 2,880만평의 산출 방법과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 현황은?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은 2006년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수도권 가구 증가율(1.84%), 주택멸실률(0.93%)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량의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총 153만호 중 60%인 92만호를 공공택지에 건설한다고 보고, 호당 평균 31.5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880만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 현황은 2001년 말 총 1,900만평으로 성남판교 282만평, 화성동탄 274만평, 양주고읍 48만평, 용인홍덕 59만평, 평

〈표 1〉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및 택지지구 지정계획

구 분	신규 주택건설	공공택지 공급계획	택지지구 지정계획
2002	33만호	600만평	450만평
2003	30만호	570만평	420만평
2004	30만호	570만평	420만평
2005	30만호	570만평	420만평
2006	30만호	570만평	420만평
계	153만호	2,880만평	2,130만평

〈표 2〉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보급률 전망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택건설(만호)	33	30	30	30	30
주택보급률(%)	91.8	94.5	96.9	99.3	101.4

택청북 60만평, 파주운정 148만평, 오산세교 99만평, 용인서천 34만평, 화성봉담 24만평, 남양주진접 60만평, 화성향남 52만평, 김포장기 25만평, 파주교하 20만평, 고양풍동 11만평, 용인구성 30만평, 용인보라 25만평, 인천논현 2지구 76만평 등이다.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할 대상지역이 택지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번에 수립한 중기 택지수급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신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5년간 총 2,130만평을 지정할 계획으로 2002~2004년까지 지정하는 지구는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공급할 계획이며, 2005~2006년사이에 지정하는 840만평은 2007년 이후의 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지정하는 것이다. Ⓜ

